스왕가니바스의 애화

방콕에서 자동차로 고속 도로를 달리면 45분 걸리는 남쪽 해변에 스왕가니바스라는 곳이 있다. 여기에 몇 십만 평이나 되는 널찍한 자리에다가 폐결핵 환자의 요양소로 잡은 곳이 바로 이번 EACC 총회 장소였다. 남쪽 나라의 태양과 훈풍에 쌓인 이 회의 장소는 꽃과 새의 낙원이요 에덴 동산을 생각케 하는 지상 낙원이나 다름이 없었다. 동남 아시아 지역에 있는 각국 교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투리 어조의 영어로 교회를 논하고 국제 문제, 도시와 윤리 문제를 토의하는 동안 한국 대표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한 토막의 애화가 있었다. 총회는 총회대로 문제를 안고서 왈가왈부가 오고 가는 중이었지만 한국 대표에게 부회장 자리를 줄 거라는 언질인지 소문인지를 둘러싸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 토막의 애달픈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흔들기에는 너무나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먼 남쪽 나라에 복음의 선포자로 투신할 것을 다짐하고 떠난 한국의 한 선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곤경이라 해서 선교비 조달이 원활치 않아서가 아니었다. 슬픈 일, 기쁜 일을 서로 나누고 합심해서 지내야 할 동역자와의 인간 관계에서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압박을 받아야만 한다는 딱한 사정 때문이었다. 넓은 타일란드에 교포의 수란 손꼽을 정도의 적은 수. 그 중에서도 선교사로 파송 받은 사람이라곤 불과 몇 사람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어째서 단란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가? 한 하나님, 한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주를 섬기고 그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는 믿음에 사는 성도, 그것도 낯설은 타향에서 언어와 풍속의 장벽과 싸우면서 적응해야 할 이상 조건에서 사는 한 동포 몇 사람 사이에서 이런 불화가 계속되어야 한다면 헌금을 모아서 선교 사업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화창한 태양빛이 쬐이는 푸른 잔디 위에서 교직자의 아내로서의 고충을 털어 놓는 모습이 무척 애처로왔다.

구태어 여기서 센티멘털한 동포애의 감정에다 호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선교를 한다는 기본 자세에 있어서 보내는 편이나 보냄을 받는 편이 인간 관계에 대한 깊고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스도교적인 참여는 인간 관계에서 빚어지는 긴장을 창조적인 정치로 다루어 나가는데 있을 것이다. 무릇 인간 관계에 있어서 비생산적인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비참여의 형식이라고 한 차례 규정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교의 참여는 결코 행동주의로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어서의 인간 관계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할 것이다.

이국에서 보는 선교 사업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실패하는 것은 인간 자신을 위해서 슬픈 일일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 자체를 위해서도 애달픈 일이라고 할 것이다. 성숙한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데서 참으로 참여하는 선교, 열매를 맺는 선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